

# 민주 당대표 예비경선 2강3중 '혼전'

〈이해찬·김진표〉 〈송영길·최재성·이인영〉



2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최재성, 김두관, 박병계,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이종걸 후보. /연합뉴스

## 내일 컷오프...중앙위원 100표 확보하면 통과 무난 정견발표 변수...호남출신 송영길 통과 여부 관심

오는 26일 치러지는 당 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후보 등록 막판, 이해찬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8명 가운데 3명이 통과하는 컷오프의 관문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442명의 투표로 이뤄지는만큼 100표 정도만 확보하면 컷오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적인 컷오프 구도는 이해찬-김진표 의원이 2강, 송영길-최재성-이인영 의원이 3중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위원들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서 전체적인 판세에 순응하기 보다는 단일 현장에서 지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 직전 실시되는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 후보가 난립한 상황인데도 모든 후보들이 문재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어 컷오프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컷오프 결과는 민주당 내외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이 모두 친문 진영일 경우, '친문 독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 당내 비

주류로 평가되는 이인영, 이종걸 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당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만약 컷오프 통과 후보들이 모두 핵심 친문 인사들이라면 '친문 독점'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당원들은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의 컷오프 통과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이 지난 대표 예비 경선에서 친문 진영의 견제 등에 따라 간발의 차로 석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송 의원이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 호남세가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송 의원마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에 상당한 파문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4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

은 페이스북에서 "다가을 당 대표 경선에 공정한데 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주최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박광온 의원은 24일 광주를 찾아 "호남 대표성을 갖는 최고위원이 돼 광주시민의 욕망을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대차의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장점이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광주는 저의 뿌리이자 민주당의 뿌리이며 저를 통해 광주의 정신이 민주당에서 실현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野, 靑 협치내각 제안에 '시큰둥'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진정성 의문'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야당은 24일 일제히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는 야당을 상대로 같이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제안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는 가운데 청와대 입장만 갖고 언론 보도도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130석 밖에 안 되니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뜬금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 정권이 대립의 반복과 보복 정치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반성과 진정성 있는 다짐이 있다면 우리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광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장관 자리 1, 2개를 내어주면서 협치의 포장을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먼저 진정성을 보

여야하고 말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이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임정은 다소 미묘했다. 이 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제안이 온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응할지 말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도 "국회 내 협치가 원활해야 하는데 내각에서의 협치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청와대나 민주당이 정확한 의중을 밝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야당이 진정성 문제를 놓고 의구심을 표시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치내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진정성을 집중 설명한 이후 야당과 다양한 시나리오의 협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협치내각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

## 한국당 비대위, 현역 4+외부 수혈 5

위원 인선 마무리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며, 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합친구 정책위의장 외에 박덕흠·김종석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외부인사로는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

총장, 이수희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 새로 비대위원으로 포함됐다. 최재익임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했다는 판단과 함께 여성·청년층을 배려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비대위원은 아니지만 배현진 송파를 당협위원장이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잇단 회의에서 이 같은 비대위 인선안을 보고하고 참석 의원과 위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또 이념 편향 공세

노정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은 사법부 코드화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지만, 여당은 노 후보자를 옹호하며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

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

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며 노 후보자를 지켜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성범죄 양형 문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과 관련한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면서 정책 질의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재정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도 있다"며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감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

는 종합평가서를 통해 "현장경험의 부족, 경찰청 인사 운영 개선 및 일부 수사 이슈 등에 관해 답변이 불명확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행안위는 민 후보자의 장점으로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 경찰 내 기획 전문가로서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노회찬 장례식, 정의당장·국회장으로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을 3일은 정의당장(葬)으로, 나머지 2일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기로 하고 24일 밝혔다. 애초 정의당은 노 의원의 장례식을 정의당장으로 5일간 치르기로 했지만, 유족과의 협의 끝에 23~25일은 정의당장으로, 26~27일은 국회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화상 국회의장은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장을 하라 해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장으로 엄숙히 영결식을 치르겠다"며 유족 측에 국회장을 제안한 사실을 알렸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국회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추모제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 법률 경매

①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영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① 서구 병천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채 (22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4억4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차평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중 6층)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이파크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권,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